논어 6편 옹야 1장 · 원문·풀이

子曰：「雍也，可使南面。」仲弓問子桑伯子。子曰：「可也，簡。」仲弓曰：「居敬而行簡，以臨其民，不亦可乎？居簡而行簡，無乃大簡乎？」子曰：「雍之言然。」

독음 · 자왈 옹야 가사남면 중궁문자상백자 자왈 가야 간 중궁왈 거경이행간 이림기민 불역가호 거간이행간 무내태간호 자왈 옹지언연

쉬운 풀이(요약) · 중궁은 다스리는 일을 맡을 만하다. 마음은 공경스럽게 지키고 정사는 간략히 하는 것은 좋지만, 마음도 느슨하고 일도 느슨하면 지나치게 소홀해진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子 아들 자 / 曰 가로 왈 / 雍 조화로울 옹 옹 / 也 어조사 야

可 옳을 가 가 / 使 하여금 사 사 / 南 남녘 남 남 / 面 낯 면 면

仲 버금 중 중 / 弓 활 궁 궁 / 問 물을 문 문 / 桑 뽕나무 상 상

伯 맏 백 백 / 簡 대쪽 간 간 / 居 살 거 거 / 敬 공경할 경 경

而 말이을 이 / 行 다닐 행 행 / 以 써 이 이 / 臨 임할 림 림

其 그 기 / 民 백성 민 민 / 不 아닐 불 / 亦 또 역

乎 어조사 호 / 無 없을 무 무 / 乃 이에 내 내 / 大 클 대 대

之 갈 지 / 言 말씀 언 언 / 然 불사를 연 연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